

광주·전남 출신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지금은...

사업가로... 교수로... 제2 인생도 '금메달'



〈레슬링-김영남〉



〈체조-여흥철〉



〈유도-조민선〉

한국은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에 최초로 참가한 이후 지난 60년 동안 15번의 올림픽에 출전해 18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중 광주와 전남지역 출신 선수들이 따낸 메달은 금 15개, 은 14개, 동 10개로 총 29개에 달한다. 단체전을 포함한 메달리스트만 54명(메달 연속 획득 포함)으로 한국 스포츠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선수들이 많았다.

한편 출신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김영남(49)씨는 '운동'과 '사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딴 케이스다. 김씨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5일째 우리에게 첫 금메달을 안겨줬다.

당시 패자의 손을 치켜들어준 것을 계기로 파울렛사와 의형제를 맺은 김씨는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가 파울렛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현재는 100억원대 재산가로 성장했다.

김영남 카자흐스탄서 100억원대 재산가로 서향순 패스트푸드점 운영...美선 양궁캠프 여흥철 경희대 교수 재직하며 유망주 양성

한국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금메달의 시초인 김원기(48·84년 LA 올림픽)씨도 합평 출신으로 김영남씨와 함께 운동을 했다. 그는 현재 계속제어장비를 생산 납품하는 '실장성마을회'란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중이다.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양궁 여자개 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서향순(41·미국 거주)씨도 사업가로 성공한 경우다.

서씨는 14년 전부터 충북 충주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며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는 한국을 오가며 두 곳의 점포를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교포 자녀를 대상으로 양궁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많다. 1996년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여흥철(37·광주)씨는 현재 경희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교수로 스포츠 유망주들을 양성하고 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안한봉(40)씨는 현재 삼성생명 감독으로 활동중이다.

이 밖에도 여자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땀던 김조순(33·목포)씨는 현재 국가대표 탁구팀 코치인 김택수(38·광주)씨와 결혼해 가정주부로 생활하고 있다.

아직도 선수생활을 하고 있거나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양궁-서향순〉



〈레슬링-안한봉〉



〈사격-여갑순〉



Advertisement for KCC (주)금복시스템

내년부터 장마 예보 사라진다

시작·종료 시점 의미없어

기상청이 장마전선의 종료를 예측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이전 시작 시점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기상청은 22일 "내년부터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예보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이 같은 결정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대기 불안정, 기압골 영향은 물론 장마전선과 태풍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국지성 호우 등이 자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들어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화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기상청은 "국민들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장마라고 생각하지만 기상학적으로는 장마전선에 의한 경우만 장마라고 부른다."

주말 흐리고 비...휴일은 맑음

주말 광주·전남지역에는 비가 온 뒤 점차 개 휴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23일 광주·전남지역은 흐리고 지역에 따라 비가 온 후 점차 개겠다"고 예보했다.

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7~30도.

휴일인 24일(일요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는 등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며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

5·18 묘지내 건국 60주년 조형물 논란

시민·5월 단체 "정치적 이용 우려" 철거 촉구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내 건국 60주년 기념 설치물에 대해 시민과 5·18 관련 단체들이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광복절·건국절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설치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어 "2012 북음엑스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과 등을 기념하는 '바람의 시간- 거대한 부류' 국립묘지 설치예술품을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건국 후 민주와 성과를 뒤돌아보고 건국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는 최근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시민이 뽑아준 자치단체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상의 종교 중립과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 발언과 횡포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항의했다.

에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국립 5·18 민주묘지의 전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설치물 내용도 5월 영령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철거 주장 이유중 하나다.

경찰 조사항과 신씨는 후배인 김씨

무등산서 변사체 발견

지난 21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 북구 무등산 꼬막재의 바위 틈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양봉업자 김모(36)씨가 발견,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망한 지 약 3개월 이상 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등산로에서 한참 떨어진 곳인 점으로 미뤄 이 남성이 등산 도중 산 속에서 실족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엑스포는 하나님 선물' 시장 기고 논란

엘지후련 당직 공무원은 출판·싸움질

가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방지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술병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항과 신씨는 후배인 김씨

Weather forecast for August 23rd, including temperature, precipitation, and a map of Korea.

염동연 前 국회의원 향소심 벌금 200만원

서울고법 형사1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이 2004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이모씨의 돈 3천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6명의 차명으로 나눠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주수도 재이유 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700만원 받은 혐의와 주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서양화를 받은 혐의 등은 무죄 판결했다.

순찰 돌던 경찰, 화재 초기 진압

○순찰근무중 이던 경찰관이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뻔한 불을 초기에 진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로부터 칭송.

○2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동구 총장로 K미용학원 박모 원장이 "지난 19일 밤 자신의 학원에서 발생한 화재를 금남지구대 소속 송재화 경위와 소광열 경사가 초기에 진압해 26년간 피망 흘러 일구놓은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뒤늦게 감사 표시를 해줬다는 것.

여수시 왜 이러나

#1 오 시장은 이어 "2012 북음엑스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는 최근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시민이 뽑아준 자치단체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상의 종교 중립과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 발언과 횡포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항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장의 허락없이 직장선교회 공무원이 시장 명의로 글을 기고한 것"이라며 "시장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